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무릎팍도사 출연자 성격분석 다섯번째 내향난초 기질입니다.

내향난초 기질의 사람: 권상우, 배철수, 이외수, 장미란, 장영주(사라장), 최민수

내향난초 - 자발적인, 예술적인, 편의적인, 자유로운, 융통적인

도구를 능숙하게 잘 다루며, 기술적 재능을 활용해 절제된 미를 발휘한다. 절제된 멋을 발휘한다.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적응한다.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규제가 많은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환경을 좋아한다.

세상을 관망하며 느긋하게 바라보는 스타일이다.

자율적으로 일하기 좋아하며 구속받는 것을 싫어한다.

팀으로 일하기보다 독자적으로 일하기 좋아한다.

말을 간단하게 한다.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적은 노력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음악, 예술, 조각 등 순수예술 분야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일을 할 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자들 중에는 따뜻한 심성을 가졌지만, 과묵한 반항아들이 많다.

권상우 - 영화배우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화법을 구사하는 내향난초 기질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선생님께 직선적으로 표현했던 과거

배철수 - 방송인, 가수





난초 기질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이다.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영혼





인위적인 삶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난초기질

## 이외수 - 소설가





젊은 날 춘천거지라는 별명으로 히피로 살았던 소설가

장미란 - 역도선수







## 장영주 - 바이올리니스트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나 마음은 자유를 갈망한다. 그런데, 막상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해 고민이다.



줄리아드 음대 복도에 있는 자판기의 먹을 것이 좋았던 어린 소녀





그냥 음악이 좋고 즐거워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





자신은 유명한 사람, 천재 음악가로 불리는 것 보다 그냥 음악가로 불리는 것이 편하고 좋다.



최민수 - 영화배우, 탤런트





가장 자연스럽게, 느리지만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연을 음미하며 살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속 받기도 싫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도 싫은 자유로운 영혼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